

문재인 대통령, 방일 여부 관심

靑, 코로나 확산세 별개로 文방일 성사 의지 강해 임기말 경색된 한일관계 물꼬 '마지막 기회' 판단 '과거사·오염수·수출 규제' 해결 로드맵 마련 기대

국내 코로나19 '4차 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4차 유행 '악재'가 터져 문 대통령의 방일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강한 의지가 감지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일 여부는 이른바 이번 주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역대 두번째로 많은 1324명이다. 지난 7일부터 5일 연속 1200명~1300명대를 기록 중이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매섭다. 지난 10일 오후 7시50분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2458명으로, 나흘째 2000명대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차 긴급사태'

가 선포됐다.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은 전 기간 긴급사태 속에서 열린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상황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별개의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다. 특히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을 통한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한일관계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 의제 테이블에 올리려 일본 정부와 물밑 협상 중이다.

모두 양국 간 입장차가 큰 사안들인 만큼 일각에서는 의제 조율이 쉽지 않고, 우리 측이 '성과'를 가져오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일 조건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들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한일 관계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보고, 관련해 일본 측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양국이 어떻게 해나갈지 로드를 만드는 정도를 만들면 양국 간 발전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를 놓고 우리 정부와 줄다리기를 해오던 일본 측이 조만간 긍정적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림픽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 올림픽 참석을 확정된 정상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하루빨리 결정짓는 것이 올림픽 흥행과 일본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이 언제까지 답을 안하고 버틸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이 내주 초 정도가 되면 어떤 신호를 주고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민주당 대선 경선 진출 6명 확정...최문순·양승조 탈락

9월5일까지 전국 순회 경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경선에 진출하는 6명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경선 개표식을 갖고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등 6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민주당은 일반 국민(50%)과 당원(50%)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각 후보별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6명의 주자들은 다음달 7일 대전·충남을 시작으로 9월5일 서울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른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결과는 지역별 경선일에 맞춰 발표되고 선거인단 투표결과는 8월15일과 29일, 9월5일 세 번의 슈퍼위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이 7일 경기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 정책 연설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김두관·최문순·양승조·박용진 후보.

발표된다. 서울 경선 결과까지 합산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

위 후보 간에 9월1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뽑는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이낙연, 이준석 '통일부 폐지론'에 "무책임한 주장 철회하라"

"통일부 폐지론, 어리석어...업무 확대·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 무용론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제1야당은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하루빨리 철회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1야당이 불안하다. 그들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이다.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결코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통일부 폐지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의문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와 대외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 통일부는 오히려 그 업무를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그 기복에 일희일비하며 오락가락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기복이 있더라도 인내와 지혜로 대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수해 복구 점검하는 정세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전남 해남군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정세균 후보실 제공)

추미애, 14~15일 광주·전남 방문

광주시의회서 '광주선언' 발표... '지역발전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오는 14~15일 광주·전남을 방문해 지역발전 정책을 제시한다.

11일 추 의원 측에 따르면 추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선언'을 할 예정이다.

광주선언은 광주·전남의 포괄적 상생발전 방안이다. 대표적 농도인 전남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와의 상생 방안, 전남 서부권, 동부권 등 각각의 권역을 잇는 호남형 메가시티 구상이 골자다. 추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 호

남을 직접 챙기기 위해 당대표 출마 때 약속했던 '호남비전위원회'를 설치했고, 직접 위원장을 맡아 호남 예산과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이어 이날 오후 6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추미애의 깃발' 대담집을 함께 했던 김민웅 교수와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북콘서트는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로 생중계한다. 다음 날인 15일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